

 금융위원회	보 도 (참 고) 자 료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1.4.1(목)	

책 임 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김 수 호(02-2100-2880)	담 당 자	박 미 리 사무관(02-2100-2891)
	금융감독원 국제국장 김 용 태(02-3145-7890)		양 지 영 팀장(02-3145-7901)

제 목 : 미얀마 정세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


<회의 개요>

- 일시: 21.4.01(목) 11:00~12:00/ 화상으로 개최
- 참석: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(주재), 외교부,금감원, 산은·기은·KB·신한은행, 은행연·여신협 등
- 안건: 회사별 미얀마 상황 및 비상연락체계 점검, 상황별 대응방안 등

- (상황 개요) 21.3.31. 17시(현지시간) 신한은행 양곤지점에 근무하는 미얀마 현지직원(여성, 33세)이 근무를 마치고(16:30),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근차량을 통해 귀가하던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당함
 - 해당 직원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, 신한은행은 직원상태 파악 및 지원시스템을 가동중임
- (그간의 대응) 금융당국은 미얀마 진출 금융회사,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미얀마 정세 관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(21.2.24)·운영중
 - 그간 수시 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현지진출 금융사의 애로 사항 점검, 직원 안전 조치방안 강구 등 지원노력을 지속해 왔음
 - 현지진출 금융회사들도 직원안전을 위한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음

- (향후 계획) 금융당국은 외교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지진출 금융회사 직원의 안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,
- 금융회사와 함께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현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*
- * 현지 영업점 소재지 상황에 따라 **영업점 임시 폐쇄·전직원 재택근무 전환 등 조치중**이며, 추가적으로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 등도 검토중임
- ※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별로 직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안내 예정

(첨부) 미얀마 진출 금융회사 현황

  <p>공공누리 공공지착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</p>	 <p>행정부리청 콜센터</p>
---	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구분	회사 수	회사명
은행	9	(지점/현지법인) 신한, 기업, 산업, KB
		(사무소) 우리, 하나, 부산, 농협, 수출입
MFI 소액대출	15	하나MF, BNK캐피탈, 우리은행, 우리카드, IBK 캐피탈, 신한카드, 농협, 수협, 메이슨, 대구은행, 국민MF, 국민카드, JB캐피탈, Inno캐피탈, DY캐피탈
카드	2	국민카드, 신한카드
보험	2	DB손보, 교보생명